



“여기 서 있는 그대 화해하십시오”

꿈 하나만 믿고 세운 범기독인모임 떼제(Taize) 공동체를 가다

“탱~ 탱~” 정오가 되자 종소리가 울렸다. ‘화해의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여기 서 있는 그대 화해하십시오.” 교회 앞에 세계 각국의 언어로 쓰인 말을 뒤로 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당 안으로 들어섰다. 예배당 안에는 수천 개의 촛불과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앉거나 혹은 무릎을 꿇고 기도 하거나, 혹은 서거나. 피부색이 서로 다른 500여 청년들의 모습 또한 제각각이었다.

흰 옷의 수사들이 두 줄로 정렬해 앉자, 예배당 안에는 침묵이 흐른다. 거대한 침묵 속에 예배당 안의 이들은 어느새 하나가 됐다.

프랑스 파리의 리옹역에서 TGV를 두어 시간 타고 크르조역에 내려, 다시 버스로 1시간 여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그곳. 떼제(Taize).

작은 마을 이름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행단체 이름으로 대신하게 된 그곳에 도착했을 때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 일행은 흰 옷의 수사들을 만났다. 순백색의 가운을 걸친 이들의 표정은 친진만만하다고 해야 할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맑았다.

이들의 맑음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 청년(淸貧)에 있었다. 어떤 기부도, 설사 뜻있는 상수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50년간 지켜져 온 곳. 공동체 운영비용 등은 참가자들에게 받는 숙박료와 수사들의 노동으로 충

당되고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참가자들은 출신국가·연령에 따라 차등된 숙박료(5~7.5유로)를 내면 된다. 한 해 10만명이 떼제공동체를 찾아와 기도와 묵상, 봉사를 한다니 그 규모가 미루어 짐작된다.

조계종 프랑스 방문단을 맞은 떼제공동체 원장 알로이스 수사가 말했다.

“떼제를 방문해 준 스님들이나 우리 수사들은 너무 상이한 전통에서 살아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까워보인다. 오늘 하루 이 가까워 보임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싶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수사들의 눈빛과 얼굴이 맑아 부처님 같다. 독신수행자라는 동질감, 발우공양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는 유사한 식문화에서 스님과 수사들의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떼제(Taize)공동체는 세계2차대전 중이던 1940년 8월, 25세 청년 로제(Roger Louis Schutz-Marsauche; 1915~2005) 수사가 동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제에 홀로 와 정착하면서 시작됐다.

스위스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청년 로제는 전쟁 중에는 유대인을 숨겨줬고 전쟁 후에는 독일군 포로들을 돌봤다.

돈도 조직도 없던 청년 로제가 가진 것은 단 하나였다. 그것은 ‘꿈’이다. 로제의 꿈은 이 세상에서 서로 화해하고 또 화해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꿈이었다.

1949년, 로제의 꿈에 마음을 모은 7명의

수사들이 독신 생활, 수도원장의 직무 인정, 물질적·영적 재산의 공유를 서원했다. 1952년 떼제의 규칙을 설정했다. 첫 수사들은 개신교회 출신이었으나 이후 가톨릭 신자들이 입회하면서 범기독교 수행공동체로 거듭났다.

현재 떼제공동체에는 25개국 출신 100여 명의 수사들이 수행 중이다. 이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세계 방방곡곡에 또 다른 떼제를 세우고 로제의 꿈을 실현시키는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알로이스 원장 수사를 만나는 동안, 나머지 일행들은 알로이스 원장이 ‘형제’라 부르는 수사들과 시간을 보냈다.

헝가리에서 이곳에 온지 9년됐다는 안드레아스(Andras) 수사가 말했다. “떼제공동체는 ‘빛과 소리로 마음을 움직인다’는 원칙이 있다”고. 실제로 이곳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지도의 대부분이 ‘가르치기’가 아닌 ‘들어주기’로 진행된다.

1970년을 즈음해 유럽 사회에 투쟁이 화두던 때, 이곳에서는 “(젊은이들이여) 투쟁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투쟁에 명상을 접목시켜 구호로 삼았고 이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떼제공동체의 분위기는 자연스러웠다. 캠핑장 내지 펜션촌과도 같은 공동체 곳곳에는 10여 명씩 무리지어 둘러앉은 젊은이들의 모습이 여럿 눈에 띄었다. 성경공부를 위한 모임이라고 했다.

유럽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98%에 달하지만 유럽인들은 일생에 세 번



공동기도 시간. 알로이스 원장 수사의 모습

만 교회를 간다고 들었다. 태어나면 영세를 받기 위해 한번, 결혼식을 위해 한번, 죽으면 장례를 위해 한번. 그러나 떼제공동체를 찾은 젊은이들은 달랐다.

젊음의 고뇌를 풀 수 있어서,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등.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한번 이상 떼제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떼제의 한국인 신성열 수사는 “떼제가 독일과 인접한 탓에 독일 학교들이 방향을 맞으면 50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이곳을 찾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떼제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1주일 프로그램이 연령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과를 보낸다. 오전 8시, 오후 12시, 저녁 8시 하루 세 번 화해의 교회에서 열리는 공동기



떼제공동체의 기념품샵.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건 대부분은 수사들이 만든 것들이다.

도만 참석하면 될 뿐이다.

수사들은 이들에게 성경 묵상을 인도하고 묵언과 소그룹 대화를 지도한다. 또, 예배가 아닌 시간에는 각기 공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 약세사리 등을 만든다. 이 물건들은 떼제공동체 환경에서 판매되고 있다.

알로이스 원장 수사는 “청년들은 1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며 삶의 의미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우정, 마음의 평화 떼제공동체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알로이스 원장 수사는 “떼제를 찾은 이들은 공동기도 시간 중 침묵 시간을 가장 소중한 생각하고 있다. 침묵은 다양함 속에 공통성을 느끼는 시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자승 스님은 “떼제공동체는 조계종에 비

하면 작은 단체이지만 그 영향력은 10배는 큰 듯하다”며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배울 것은 배워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알로이스 수사와 대화를 통해 “조계종과 떼제공동체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일행은 떼제를 떠나 다시 파리로 돌아오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그는 하나 없이 땀방울이 내리쬐는 플랫폼에서 1시간 넘게 연착되는 TGV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원장수사와 수사들이 주고 받은 떼제의 외침이 귓전을 맴돈다.

“모든 일에 마음의 평화를(En tout la paix du coeur).”

“기쁨과 소박함과 자비(joie, la simplicité, la misericorde).”

프랑스 파리=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신수행도량

현대불교신문 창간 17주년을 축하합니다

원장 대행 주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031-470-3100 FAX: 031-470-3116 www.hanmaum.org

(국내·국외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064)727-3100 FAX: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상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201-5 TEL: (062)373-8801 FAX: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345-9900 FAX: (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마천면 오방리 50 TEL: (055)746-8163 FAX: (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041)852-9100 FAX: (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신암면 반곡리 449번지 TEL: (054)555-8871 FAX: (054)556-1989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음 선원

- 미국 뉴욕 플라시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460-2019 FAX: (1-718)939-3974
- 미국 워싱턴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1-703)560-5166 FAX: (1-703)560-5166
- 미국 로스앤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1-323)766-1316 FAX: (1-323)766-19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674-0811 FAX: (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1-416)750-7943 FAX: (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 (54-11)4921-9286 FAX: (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투쿠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 (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2131)969551 FAX: (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 (070)8258-2391 TEL: (66-2)31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rn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 (55-11)3337-5291